

출장보고서

1. 출장개요

- ☐ 목적: 2016년 NBER Summer Institute 참석 및 발표
- ☐ 출장지: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보스턴)
- ☐ 기간: 2016년 7월 10일~16일(5박7일)
 - 세부일정
 - 7.10(일) 인천->보스턴
 - 7.11(월)-14(목) Summer Institute 각 세션 참석 및 발표
 - 7.15(금)-16(토) 보스턴->인천
 -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 페이지 참조:
<http://conference.nber.org/confer/2016/SI2016/SI2016.html>

2. 활동내역 1: 논문발표

- ☐ 발표 논문: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Cleansing Hypothesis”
 - 발표세션: Development of the American Economy
 - 주요내용
 - 대공황시기 미국의 6개 대표 제조업의 생존 및 일자리 재배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의 생산성보다는 규모가 주된 결정요인이었음.
 - 따라서 다른 불황과 달리, 대공황은 한계사업체 퇴출 및 축소에 의한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를 개선시키는 정화효과(cleansing effect)가 발견되지 않음.
 - 이 결과는 노동시장에도 큰 함의를 지님. 생산성-임금은 안정된 정의 관계를 갖고 있으나 생산성-사업체 규모는 그렇지 않기 때문임.
 - 다수의 고임금 사업체가 매우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작은 규모 때문에 생존과 일자리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음.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도 불황기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지는 정화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3. 활동내역 2: 참석 세션별 주요 논문 요약

□ 경제사(Development of the American Economic History)

○ Dell and Querubin, “Nation Building Through Foreign

Intervention: Evidence from Discontinuities in Military Strategies”
베트남전 당시 남측에 잠입한 베트콩에 대처하기 위한 미 공군의 대규모 폭격전략이 오히려 베트콩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사회경제적 성과를 저해시켰음을 보임. 당시 국방부가 IBM 컴퓨터를 도입, 전략목표 설정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방법론을 적용, 미세한 점수 차이에 의해 유발된 결과 차이를 분석함. 분석결과는 유사한 상황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현지인의 마음을 사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함.

○ Hilger, “Upward Mobility and Discrimination: The Case of Asian-Americans”

아시아계가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으면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논문임. 아시아계의 상향이동성은 교육수준의 향상 자체보다 동일 교육수준을 받은 집단 내에서 소득이 증가했던 것에 기인함. 이것은 초기의 임금격차가 통계적 차별이 아니라 취향에 따른 차별(taste-based discrimination)이었으며, 그것이 제거되었기 때문임. 경쟁적인 노동시장은 취향에 따른 차별은 제거하지만 통계적 차별은 제거하지 못한다는 케네스 애로우의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Akcigit, Grigsby and Nicholas, “The Birth of American Ingenuity: Innovation and Inventors of the Golden Age”

19~20세기 미국의 혁신을 이끈 발명가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로서, 구글 특허 검색엔진(Google Patents)의 광범위한 기록을 전산화하고 센서스 자료와 결합. 전체 인구 대비 발명가들의 다양한 특성을 조명함. 예컨대 발명가들은 평균적으로 지리적 이동성이 높고, 늦게 결혼하고 자녀를 적게 가지는 경향이 있었음.

- Biasi and Moser, “Effects of Copyrights on Science: Evidence from the World War II Book Republication Program”

저작권이 지식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을 위해 1942년 미국이 적국 독일 출판사들의 저작권을 몰수하여 교과서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게 한 조치를 사용하고 대조군으로 스위스 독일어권 출판사의 교과서들을 선정함. 분석 결과 저렴한 교과서의 인용 빈도가 높아졌으며, 물적자본보다 인적자본에 기반한 학문분야의 인용도와 활용도가 높아짐.

□ 브렉시트 특별 심포지엄(Brexit Symposium)

- 좌장: Jeffrey Frankel

- 토론자별 발언요지

- Richard Baldwin: 패스포팅 권리의 상실은 비관세 무역장벽(특히 규제)의 강화를 의미함. 영국과 EU는 결국 대안적 모델(EFTA, 스위스-EU 관계 등)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은 상당한 임금을 감수해야만 무역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Helene Rey: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의 증가와 금융부문 충격이 중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탈퇴협상 추이, 스텔링화 절하가 제조업과 서비스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의 순효과에 따라 달려있을 것임. 궁극적으로는 브렉시트라는 사건을 보다 큰 국수주의적이며 극단적인 세력이 발흥하는 유럽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Anil Kashyap: 런던 시티가 금융중심지로서 갖는 장점의 상당부분은 EU소속으로서 누리는 혜택, 특히 패스포팅 권리에 기반함. 또한 조만간 영국의 연금비용이 급증할 것이므로 이민을 제한하는 것 또한 현명하지 않음. 외환 관련 사업이 상당부분 유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적으로 유럽이 분열된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
- Thomas Sampson: 브렉시트로 인한 GDP 손실은 생각보다 클 수 있음. EU국가들의 소득하락으로 인한 무역 감소, 그에 따른 영국의 소득감소와 생산성 하락 효과 등 고려되지 않은 채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결국 GDP의 6.3~9.4% 정도의 손실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경제성장(Economic Growth)

- Caunedo and Keller, “Capital Obsolescence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국가 간 농업생산성 격차에 자본의 구성과 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각국의 트랙터의 중고가격 자료를 구축, 자본잠식 속도가 높은 곳에서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보임. 이상의 분석은 이론적으로 빈티지 성장모형에 근거함.

- Stokey, “Technology, Skill and the Wage Structure”

이질적인 노동자와 기술, 작업으로 구성된 일반균형 경제를 상정, 일부의 작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기술진보가 갖는 효과를 분석함. 작업 간 대체탄력성이 높은 경우, 다른 작업에 종사하던 고숙련 노동을 흡수하여 고용이 증가함. 인접 작업의 산출과 고용은 감소하며 가격과 임금은 증가. 대체탄력성이 낮은 경우 저숙련노동자들이 다른 보완적 작업으로 이동하여 고용이 감소함.

4. 총평

- 새로 등장한 많은 연구가 대규모의 자료를 많은 인력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이는 최근 인도의 자료처리 산업의 성장 등으로 인하여 자료수집과 처리 비용이 매우 낮아진데 근거함.
- 특히 Dell과 Querubin의 연구처럼 과거의 사례를 새로운 자료와 엄밀한 방법론으로 분석하여 현재에 대한 강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연구가 돋보임. 해당 연구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정책연구기관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함. 이는 정책연구에 대한 시각이 보다 넓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동시에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기초적 사실을 발굴하는 연구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 예컨대 Akcigit, Grigsby and Nicholas의 연구는 초기단계의 것으로 많은 미진함이 있지만, “발명가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보편적인, 그러나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함. 이는 반드시 복잡한 모형과 엄밀한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좋은 질문을 찾는 집단적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함.